



탄소 감축 길 여는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

- 7개국 정부 인사·60여 국내외 기업들 한국에 모여 국제감축 기회 모색
- 캄보디아·방글라데시와 양해각서... 이달 들어 세 번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6.24.(월)~25.(화) 서울에서 '2024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Global Net Zero Connection 2024)' 행사를 개최하고,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 7개국과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라오스, 케냐, 가나,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동 행사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별 정책 등을 공유하는 포럼, △기업 간 1:1 사업 상담회, △정부 간 양자회의 등으로 이루어지며, 7개국 정부기관과 60여개 국내·외 기업이 참가한다.

* (참여기업) GS에너지, LX인터, SK E&S, SK TI, 한화솔루션, 한국지역난방공사, 동서·서부발전 등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전 지구적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한국과 온실가스 감축 협력 강화 및 공동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협력국들의 제도 수립, 역량강화 등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베트남('23.6), 인도네시아('24.6)에 이어 캄보디아 환경부, 방글라데시 환경산림기후변화부와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한다.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상대국과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발굴하고, 감축실적 이전을 위한 절차·기준 등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정 본부장은 양해각서 체결로 상대국의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우리기업들의 사업 투자 불확실성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국제감축 시범사업 4건을 운영 중이고, 올해에는 추가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타당성 조사 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 '23년도 산업부 지원사업: 설치지원 4건(베트남 3, 우즈벡 1)

담당 부서	투자정책국	책임자	팀 장	김도현 (044-203-4068)
	투자정책과 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팀	담당자	사무관	신승일 (044-203-4098)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참고

행사 개요 및 양해각서(MOU) 주요내용

□ 행사 개요

< 「2024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2024. 6. 24.(월), 서울 명동 롯데호텔 3F 사파이어볼룸
- (주최/주관) 산업통상자원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참석자)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김상협 탄독위원장, Eang Sophalleth 캄보디아 환경부 장관 등 7개국 정부 인사, 국내·외 60여개 기업 등 160여 명
* 캄보디아, 가나, 라오스, 케냐,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 행사 일정 >

일정	6.24(월)	6.25(화)
10:00-12:30	개회사(KOTRA 사장) / 환영사 (통상본교섭부장) / 축사(탄독위원장)	1:1 상담회 · 양자회의 · 방글라데시 · 우즈베키스탄 · 라오스 등 5개국
	기조연설 (캄보디아 장관)	
	양해각서(MOU) 체결식 1.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 캄보디아 환경부 2.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 방글라데시 환경산림기후변화부 주제발표 · 세계은행, 유엔개발계획,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12:30-13:30	오찬	
13:30-17:00	패널토론 · 참여국 정부 및 기업	양자회의 · 캄보디아, 가나 등

□ 양해각서 주요내용 및 기대 효과

- (주요내용) 탄소 감축·실적 이전을 위한 사업 발굴, 절차 수립 등

MOU	주요내용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 협력국 부처* 간 파리협정 제6조 이행에 관한 양해각서 * △방글라데시 환경산림기후변화부 △캄보디아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작업반 구성을 통한 파리협정 제6조 관련 협력 사업 발굴 · 감축실적 이전을 위한 절차·기준 개발 등 추진 · 상대국 제도 정비 이전에 시범사업으로 선정·추진 중인 사업의 향후 지위 보장 등

- (기대 효과) 방글라데시(협정 가서명)·캄보디아는 아직 우리나라와 정부 간 기후변화 기본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으나 국내기업 관심은 큰 국가로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국제감축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
- 특히, 캄보디아는 국제감축을 위한 자국 절차·기준을 수립한 데 이어 이번에 우리나라와 양자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양국 간 탄소 감축 및 실적 이전을 위한 협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